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9주일(성 요셉 성일)
제31권 15호(가해) 2011-3-6

[묵상]



주님,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당신을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의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셨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저희가 불법을 일삼는다면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기에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진 못하지만
당신의 뜻을 찾고 실천함으로써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 하오니
당신을 주님이라 외치며 매달리는
저희를 물러가라고 내쫓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당신께 외치는 '주님'이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이게 하소서.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애자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울트래아(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매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립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한민교 세례자요한, 고준희 제임스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주 일 낮 미사	(연)신임순 안나, 박송희,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홍숙녀 마리아, 김종환 야고보, 최복덕 마리아, 백덕돌 & 서정록,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생)노성남 임마누엘, 정학순 발바라, 이덕철 루카 & 이순자 비비안나,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가정, 이정숙 올리아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신명기(Deuteronomy) 11,18,26-28,32

화답송 ○주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소서.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게
당신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3,21-25나,2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7,21-27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6	233	103
봉헌	69	264	255
성체	I Can Only Imagine	186	280
파견	197	103	245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

교회는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파견하신 사도들(마르 16,15; 마태 28,19-20 참조)을 통해서 받았다. 이러한 복음화활동에서 태어난 교회는 날마다 성 바오로께서 경고하시는 목소리를 듣는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1고린 9,16). 바오로 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음화는 고유한 은총이고 소명이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원입니다. 교회는 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화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점진적인 활동이며, 교회는 복음화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설교, 성사 거행, 자선행위와 불가분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복음화는 심오한 교회적인 행위이다. 복음화는 모든 다양한 복음의 일꾼들을 갖가지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활동하도록 부른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생명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우리는 이 복음에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것을 "땅 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도록 파견되었다는 깨달음으로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백성이며, 생명을 위한 백성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인다.

79).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사도 3,15)께서 당신의 귀중한 피를 췌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해 내셨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되었고(로마 6,4-5; 골로 2,12 참조), 한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의 은총으로 내적으로 쇄신된 우리는 생명을 위한 백성이 되었으며,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파견되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 봉사하는 것은 자량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이다. 이 의무는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의 여행길은 사랑의 법으로 인도되고 지탱된다. 이 사랑의 원천이요 모범이신 분은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파견됐다. 각자는 생명에 대해서 봉사할 의무를 띠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교회적인" 의무이며, 이 의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모든 분야들의 일치되고 풍요로운 활동을 요구한다. (◆계속)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통치할 때, 영국군 장성들의 모임에서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건물이나 선전 벽보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 주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의 예수가 나약한 여인들을 겁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조국 인도를 그냥 놓아두시오! 당신들의 예수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도 인도에 갔습니다. 수녀님은 가장 가난한 도시인 캘커타의 빈민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녀님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도 세우지 않았고 어떠한 선전 벽보도 붙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간디의 말처럼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 그렇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주님! 주님!’ 하고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준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한 수도회 신부가 아프리카의 조그만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실천은 이웃사랑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행함으로써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요?

◆고준석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티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P.V.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6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

3월9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재의 수요일후 금요일(3월11일) : 토런스 동구역
- 사순 제1주일 금요일(3월18일) : 토런스 서구역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25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4월1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4월8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15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재의 수요일부터 준비됩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2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신임 LA 대교구장에 호세 고메스 대주교님 취임

지난 2월27일 로저 마호니 추기경님께서 LA 대교구장을 은퇴하시고 새로 호세 고메스 대주교님께서 교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두 분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3월13일(주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13일(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하는 셈입니다. (미사시간에 늦지 않습니다.ㅎㅎ)

◆ 사순 특강

- 일시 : 3월13일/20일 주일 미사와 점심친교 후 성전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주제 : 신앙의 위기와 성숙(3월13일 강의)
- ◆ LA 대교구 생명존중(Life & Dignity)주일 설정
주보 6면을 꼭 참조해주시요.

◆ 백삼위 제단제 친선농구대회

- 일시 : 3월13일(주일) 오후 2시 농구장
- 참가단체 : 양업회, 대건회, 원서부부회, 청년회
여성팀(번외) : 자모회, 주일학교+ 청년회
- 경기방식 : 토너먼트, 전후반 12분씩, 중간휴식 5분
- 선수구성 : 5명(대건팀 제비뽑기로 당일 결정)
- 참가비 : 단체별 \$50(번외팀 제외)
- 우승상금 : Cash

◆ 예비자 교리 시작

- 교리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3월말까지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제 67차 남가주 한인 ME 첫주말 수강생 모집

- 날짜 : 2011.5.6(금)-5.8(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50(부부당)
- 문의 : 본당 ME 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최연 루시아 ☎(213)458-3356

◆ 세례, 견진 사진을 찾아가십시오.

지난 성탄세례와 2월견진 사진이 사무실에 비치중입니다.

◆ 아침성가대(아도라떼) 단원 모집

-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문의 : 김비비안나 ☎(310)407-0487, 정테레사☎(310)650-6933

◆ 본당 교우들에게 테니스 무료 강습

- 일시 : 3월 한달간, 월~금(주 2회) 오전반
- 지도 : 박 도미니코 ☎(310)971-595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6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3월12일(주일) : 토런스 남 1반(소고기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광자	김병조	김병학	김성현	김영길	김일선	김광자	김병조	김병학	김영길	김일선	김종문
	김종문	김준호	김철민	박근식	박완철	박종열	김준호	김철민	박완철	박종열	반비오	배경락
	반비오	배경락	서성용	성지용	송근섭	엄지선	서성용	성지용	엄지선	유근태	이병우	이석제
	오진	유근태	윤석구	이명선	이병우	이석제	임순	임한나	정혜영	정훈모	지경수	한금순
	임순	임한나	장영진	정혜영	정훈모	지경수	한혜숙	황지영				
	한금순	한혜숙	황지영	합계 : \$4,310			합계 : \$2,430					
미사헌금 : \$2,996							갑사헌금 : 박종열, 서예반					

공지사항

◆ 주일학교 자모회 Early Bird 티켓 상품교환

- 일시 : 오늘 주일(6일) 선데이스쿨 수업후 점심시간
- 미사시간을 잘 지켜서 받은 티켓을 꼭 가져와서 예쁜 문방구용품과 악세서리 등을 교환해가십시오.

◆ 백삼위한국학교 SAT II 한국어 시험일정 안내

- 일시 : 3월20일(주일) 낮12시부터
- 신청비 : \$1
- 대상 : 한국어 모의고사를 원하는 모든 학생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310)422-0066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일시 : 4월1일(금)~3일(주일) 오후 4시 성당 출발
- 장소 : 태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50(\$70, 3월14일 이후)
- 신청마감 3월21일 * 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정 : 5월 13일(오후 7시30분-9시): 리허설
5월19일(오후7시): Reflection
5월20일(오후7시): 견진성사
- 장소 : St. Margaret Mary 분당(Lomita)
- 신청마감 : 3월6일
- 신청비 : \$30 (식사비 포함) *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대상자 : 주일학교 10학년 이상으로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학생 *대상자는 위 3일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3월12일(토) 낮 12시~오후 2시
- 장애인 및 후원가정을 위한 미사 : 낮 1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 후버, 1137 Arapahoe St. LA, 90006)
- 메뉴 : 배추국, 불고기백반 정식
- 문의 :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영어피정

- 일시 : 4월21일(목)~24일(주일)
- 주제 : Come and See!(와서 보라!)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20~31세의 남성
- 장소 : 텍사스주 엘파소의 성골롬반 선교센터
- 문의 : 성소담당 최용훈 요셉 신부 ☎(323)388-7737

◆ 가톨릭신문사 주최 제2회 정통 크루즈 성지 순례

- 일시 : 4월27일부터 15박16일
- 내용 :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4개국
- 경비 : \$4,300(라지내측), \$5,100(발코니)
- 문의 : 삼호관광 ☎(213)427-5500

노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형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신현화 헬레나 533-0454 3/11(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신중철 아브라함 530-7702 3/12(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인식 토마스 989-0366 3/13(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박상원 야고보 323-7624101 3/1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이기숙 엘리사벳 650-1515 3/14(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평자 마가렛 433-9075	현석주 아오스딩 433-9075 3/25(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오티리아 972-9193 3/9(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김유미 사비나 738-5305 3/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이용식 베드로 516-0818 3/11(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2(토)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3/11(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4-8908 3/12(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허정자 리타 377-3820 3/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3/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생명'과 '존엄성' 주일

가톨릭 입법 네트워크에 등록합시다!

백삼위 본당이 속한 LA대교구 샌피드로 사목지역에서는 다음 주일(3월12/13일)을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주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솔리스 지역담당 주교님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모든 교우들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아우르는 신규 가톨릭 입법 네트워크(Catholic Legislative Network)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는 CLN의 모든 것에 관한 매우 유용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주의 깊게 읽어 주시고,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미사 중에 등록 카드를 나누어 드리니, 네트워크에 가입해, 능동적인 일원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CLM 백삼위 공동대표 : 강인모 테오도시오,
이남현 막시모, 박봉성 안드레아>

▶캘리포니아 주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목소리 :

A Voice for Life and Dignity in California

우리 가톨릭 신앙은 우리가 사회의 생명 존중 운동에 참여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잉태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존중을 증진시키기를 위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주교단은 2008년 ‘신앙깊은 시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적시하였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책임있는 시민 활동이 미덕이다 ;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의) 도덕적 의무이다.”(4 페이지, 13절)

이와같은 부름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의 주교단은 교우들이 정치 과정에 더 관여하기를 바라며 전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가톨릭 신자 입법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이번 3월12,13일 양일간 LA대교구 샌피드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주일을 보냅니다. 모든 미사중에 네트워크에 관해 설명되며 신자 분들이 네트워크에 등록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등록 카드는 캘리포니아주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게 캘리포니아 가톨릭 컨퍼런스로 보내 집니다. 이후 모든 등록은 우리가 공공정책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오스카 솔리스 샌피드로 지역담당 주교님께 올려

집니다. 가톨릭 입법 네트워크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주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조직수단입니다. 공공 정책 인사이트 (Public Policy Insights)라는 간단한 주간 e-뉴스 레터를 통해 네트워크 회원들은 우선 순위의 특정문제에 대한 설명과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상원이나 하원의원들에게 e메일,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를 걸기를 요청하는 정기적인 행동 알림이 발송됩니다. 만약 상원의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 10통의 e메일 메시지를 받는다면 아마 조금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원의원이 1,000통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확실하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그와 같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등장하는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적자는 한때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을 보호해주던 사회안전망을 거덜 내었습니다. 이같은 생명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사라지는 동안, 그러나 낙태 클리닉을 위한 재원은 비슷한 상태로 감소되지 않았으며,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허용하는 각종 법안은 매년 추진력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생명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강력하고, 선명하며, 도덕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자 여러분의 의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톨릭교회가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cacatholic.org에 지금 참여해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생명과 존엄성’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세요!